LG전자 'LG Q8' 이어 'LG 시그니처 에디션' 잇따라 출시

19만~199만원… 가성비·감성 앞세워 선택폭 넓힌다

50만원대 'LG Q8' 10일 출시
펜 내장… 가성비+감성 담아

'LG 시그니처 에디션' 13 일 출격
지르코늄 세라믹 적용 등 고급화

LG 시그니처 에디션 앞, 뒤 . 2018년형 'LG Q8' /LG전자

LG전자가 가성비 높은 중저가 스마트폰부터 고가의 프리미엄폰까지 다양한 모델을 꾸준히 출시하며 사용자의 스마트폰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19만원대의 저가 스마트폰(LG X2)부터 199만원대의 고가 스마트폰(LG 시그니처 에디션)까지 가격도 다양하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와 경쟁 제품의 출시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모델의 판매 확대에 주력하며 사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2018년형 'LG Q8'을 오는 10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Q8은 올해 두번째 Q시리즈로 지난 6월 Q7을 출시한 후 약 2달 만이다. Q8은 출고가 53만9000원으로 중가대의 가격에도 전용 펜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기능과 아날로그 감성을 담아냈다.

Q8에 내장된 '스타일러스 펜'을 통해 쉽게 메모할 수 있으며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펜만 뽑으면 디스플레이에 바로 메모할 수 있는 '바로 메모' ▲아무 화면에서나 즉시 메모하는 '팝 메모' ▲메모 공간이 부족하면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터치해 아래로 내리며 쓸 수 있는 기능까지 다양한 메모가 가능하다.

편집 기능도 다양하다. ▲내장된 기본 도안뿐 아니라 사진을 도안으로 바꿔 원하는 대로 색칠할 수 있는 '컬러링 북' ▲폰 안의 사진을 꾸며 이모티콘처럼 쓰는 '나만의 이모티콘' ▲동영상을 GIF 파일 형태로 편집해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드는 'GIF 편집' 등이 적용됐다.

8:9화면비의 6.2인치 대화면에도 베젤을 줄인 '풀비전' 디자인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뛰어난 그립감을 갖췄다. 멀티미디어 경험도 탁월하다. 제품 후면의 1600만 화소 고해상도 카메라에는 '위상 검출 자동 초점' 기술을 적용해 빠르게 초점을 잡아 선명하게 촬영해준다.

전면 초광각 카메라는 화각이 100도로 셀카봉 없이도 7~8명이 함께 셀카를 찍기에 충분하다. '하이파이 쿼드 DAC'을 탑재해 원음에 가까운 깨끗한 소리를 구현하고 음원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콘텐츠를 재생해도 입체 음향효과를 내는 'DTS:X' 입체음향 기술까지 더해 LG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군에 탑재된 독보적인 명품 사운드도 고스란히 담아냈다.

프리미엄을 강조한 200만원짜리 스마트폰 'LG 시그니처 에디션'도 오는 13일 정식 출시한다.

LG 시그니처 에디션은 세계적인 오디오 명가 뱅앤올룹슨이 튜닝한 명품 음질을 구현하며, 제품 후면에는 가공이 까다롭지만 흠집이 잘 생기지 않는 지르코늄 세라믹을 적용해 오래 쓰더라도 처음 그대로의 우아함을 유지한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해 사후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제품 후면과 가죽 지갑형 케이스에 고객 이름을 새겨주는 각인 서비스도 제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초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5 씽큐(ThinQ)'를 출시했다. 얇고 가벼운 LG V30의 디자인에 LG G7 씽큐의 강력한 성능을 담은 제품이다. 6인치 18대 9 화면비의 올레드 풀비전 디스플레이에 6GB램, 64GB의 내장메모리가 적용됐으며 출고가는 104만8300원이다. LG V35 씽큐는 ▲스스로 사물을 인식해 최적의 화질을 추천해 주는 'AI 카메라' ▲최대 7.1채널의 사운드를 전달하는 DTS:X 3D 입체음향 ▲뛰어난 명암비와 빠른 응답속도로 생생한 고화질을 즐길 수 있는 '올레드 풀비전 디스플레이' ▲3300mAh의 넉넉한 배터리 용량 등을 갖췄다.

상반기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인 G7 씽큐의 판매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북미 시장에 이어 7월 브라질과 멕시코에 LG G7 씽큐를 출시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로써 LG G7 씽큐는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CIS 등 핵심 지역에서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게 됐다. /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고객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선불요금제 프로모션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알뜰폰 선불요금제 전국 매장서 가입하면 한 달+한 달 요금 무료

LG유플러스는 자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오는 10월말까지 전국 2000여개의 U+ 매장에서 알뜰폰 선불요금제 한달 월 정액을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달간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알뜰폰 선불요금제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들은 첫 달 월 정액 납부만으로 총 두 달간 통신 서비스 사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선불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는 머천드, 미디어로그, 스마텔, 에넥스, 여유,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등 8개사다. 고객들은 이 사업자들이 지난해 7월 출시한 '정액형 선불요금제' 5종을 통해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액형 선불 요금제'는 음성·문자를 기본으로 쓸 수 있고, 제공된 데이터 용량을 다 소진하더라도 일정 속도 내에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월 정액을 납부하면 한달 동안 음성·문자·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선불 요금제는 선불 충전 금액만큼 제공되는 음성·문자·데이터 소진 시 한 달 중 남은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김나인 기자 silkni@

BMW 차량, 목포서 또 화재… 민관 합동조사 추진

올 들어 총 31대 화재 사고
'520d ' 차종은 18대 달해
국토부, 정밀분석 본격착수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520d 차량 /연합뉴스

지난 4일 전남목포에서 주행 중 불이 난 BMW 520d는 사흘 전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이은 화재발생으로 리콜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는 31건이었다. 이 가운데 520d 차종은 18대다. 화재원인으로 지난 2016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가 꼽히고 있다. 현재 목포 BMW 화재차량은 2014년식으로 10만km가량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BMW 측으로부터 엔진 화재와 관련한 기술분석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일체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하 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최대한 참가시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BMW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차량 엔진 화재가 디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 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원점부터 다시 정밀 조사를 벌여 BMW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낼 방침이다.

정밀 조사를 실시하면 BMW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화재 차량 분석과 제작결함신청위 심의, 제작사 의견청취 등을 거치게 된다.

현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외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흡기다기관의 내열성 문제 등 다른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BMW의 가솔린 엔진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지며 엔진 화재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MW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BMW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원인은 아니었다"며 "국내 차량들은 유럽과 동일한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 기업 '쏘카' 역시 지난 1일부터 고객 안전 보호를 위해 BMW 코리아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쏘카는 고객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보유한 BMW 차종 520d, X3 총 56대 전량에 대한 차량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사전 예약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다른 차량으로의 예약 변경, 환불 등 고객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BMW는 현재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해 긴급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은 1만5337대이며 예약 대기 중인 차량은 3만6606대다. /정연우 기자 ywj964@

기아차,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 두번째 결실

모잠비크·말라위에 중학교 건립·기증

지난 3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GLP 직업훈련센터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기아차 임직원 봉사단, 직업훈련센터 학생 및 행사 관계자들이 GLP 직업훈련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GLP)의 하나로 아프리카 빈곤 지역에 건립한 자립형 모델을 지역사회에 이양했다고 5일 밝혔다.

기아차는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의 두번째 사업으로 2013년 모잠비크 자발라와 말라위 릴롱궤 지역에 중등학교를 세웠다. 지난 5년간 글로벌 비정부기구(NGO)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모잠비크), 사단법인 기아대책(말라위)과 협력해 중학교를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교육·보건 서비스 ▲수익 창출 가능한 자립사업 등을 지원했다. 두 학교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 것이다.

모잠비크의 경우 스쿨버스와 이동보건소 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지원해 10개 마을 지역주민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리적으로 멀어 교류가 없던 학교 간 체육 활동과 문화체험을 보조했다.

또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자소득을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액저축·대부사업을 운영했다.

말라위에서는 봉고 트럭 1대를 교육용으로 개조해 인근 3개 마을 미취학 아동을 찾아가 영어·수학·과학 등을 가르치고, 방앗간 운영·제빵사업·학교매점 운영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

이번에 이양된 중학교와 찾아가는 교육·보건 서비스, 자립사업 등은 앞으로 모두 현지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며 NGO와 기아차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